



“장학금 1억 모아 어려운 학생 돕겠다”

글 채승웅 작가 / 사진 오병돈 노브스튜디오

민근식 회장은 아산장학생 출신답게 늘 검소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해왔다

2013년부터 정답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근식(56) 씨는 (주)썬캠 상무로 재직 중인데, 인터뷰 중에 스스로를 “아산의 후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1959년 서울 공덕동에서 1남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민영대·김종숙)은 한국전쟁 당시 고향인 황해도 연백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이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아버지는 해태제과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했다.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큰 부족함 없이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활발한 성격이어서 항상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집 근처 효창공원에서 뛰어 놀았죠. 6학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제1회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마스크

를 뒀습니다.”

감성이 풍부했던 그는 중학생 때 인생의 멘토를 만난다.

“운 좋게 모범생인 친구와 단짝이 되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광남이라는 친구였는데, 공부는 물론 인성이나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기면 ‘광남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생각을 먼저 할 정도였죠. 그 친구 덕에 고전음악과 영화·연극 등 예술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저도 로맨티스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의 꿈은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다. 1978년에는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경제학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모의 뜻에 따라 무난히 취업할 수 있는 과

를 선택했다. 하지만 1979년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이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슬픔도 잠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 상태에서 학업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생들을 두고 학업을 이어간다는 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휴학하고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돕기로 결심했다.

“1982년 어머니가 양장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전념하기 힘들어 2년 정도 공부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학교를 떠난 지 4년만인 1984년 2학년으로 복학하려 했으나 재입학 절차를 밟아야 했고, 다시 2학년이 된 1985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아산장학생이 됐다. 아산장학생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던 그는 열정적으로 장학생 활동을 했고, 활발하고 사람들을 물고 다니던 성격 덕분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인 정담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전거 이용한 북한방문 계획

“정담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학회입니다. 저는 동문들에게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모였으니 영국의 블룸즈버리 그룹(Bloomsbury group, 1900년대 초반 활동한 영국의 작가·철학자·예술가 집단)처럼 지적인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최성(52·고양시장) 동문과 함께 토론회 개최를 주도했습니다. 장학생들은 토요일마다 광화문 정담 사무실에 모여 시사와 문화를 주제로 토론했죠. 매번 20~30명 모일 정도로 장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장발을 하고 다녔다. 고전음악에 심취해 클래식 연주회를 찾아다니는 그에게 동문들은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정담회 회장 신분으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와 가끔 면담했는데, 설립자는 “자네 현대에 들어오려면 머리 많이 잘라야겠어”라며 농담을 건넸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1987년 럭키금성 그룹 금성반도체에 입사했다. 금성반도체는 훗날 LG정보통신으로 이름을 바꾸고 반도체와 교환기는 물론 이동통신시스템·모바일·터치패널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는 이곳에서 대외협력팀과 감사팀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 2006년 터치패널 생산기업인 (주)ELK의 이사로 이직해 2013년까지 근무했고, 지금은 바잘트 섬유를 취급하는 (주)썬캠의 상무이사과 분말야금 회사인 (주)선진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1985년 동국대에서 열린 아산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앞줄 왼쪽 두 번째가 민근식 회장이다

“바잘트 섬유는 현무암에서 추출한 친환경 섬유소재입니다. 강도가 뛰어나 자동차부품이나 건설자재로 사용 가능한,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죠. 아직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분말야금 회사인 (주)선진에서 이사직을 병행하고 있죠.”

2007년 정담 30주년 기념 문집을 발간할 때는 편집부장을 맡았다. 그는 문집에 자신의 아산정신 실천 수기를 싣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아산 정신’은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 검소한 생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다. 2013년 정담 동문회장이 된 후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아산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담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산장학생들이 장학금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3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2017년까지 1억 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둘째는 아산재단 창립 40주년인 2017년에 정담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의 행사를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던 설립자의 뜻을 잇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승인 등 준비할 일이 많지만, 실현된다면 ‘역시 아산의 후예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7년 아산재단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아산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27,771명이다. 민근식 회장을 중심으로 정담인들이 아산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